오직 정진뿐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② 수행의 기록 : '토끼의 공양'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려운 것 같다. 필자처럼 오랜 시간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써온 사람도 첫 문장을 시작하는 일이 늘 힘겹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연재하는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도 마찬가지다. 어떤 동화를 처음 선보여야 이 글의 전체 취지에 맞으면서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선택한 동화는 '토끼의 공양'이다.

왜 토끼 이야기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글에서 말한 것처럼, 자타카는 부처님이 윤회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한 전생담이다. 불교 동화를 인격에서 불격(佛格)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 기록인 셈이다. '토끼의 공양'이 이러한 수행 기록에 잘 어울리는 동화라 생각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사 자타카'에 나오는 동화다. 사사(Sasa)란 토끼를 의미하므로 토끼의 전생담이 된다. 부처님이 전생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토끼로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추석이 다가오면 회자하는 달 속에 토끼가 산다는 설화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시와 자기희생을 말할 때도 자주 등장한다.

토끼는 생태계 먹이 사슬 아래에 있는 초식동물이다. 언제라도 사자나 호랑이 같은 강자에게 먹힐 수 있는 운명인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자타카에서는 이 연약한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자의 표상,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아있다.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승가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공양 올린 장자가 있었다. 부처님은 그의 공덕을 찬탄하고 자신이 전생에 토끼로 살면서 탁발승에게 공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오랜 옛날 울창한 숲에는 토끼와 원숭이, 들개, 수달 등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포살(布薩)의 날이 다가오자, 동물들은 계율을 잘 지켰는지 돌아보고 단식 수행을 하기로 했다. 포살이란 매월 보름과 초하루에 함께 모여 그동안 쌓은 자신의 업(業)을 참회하는 불교의식이다.

그들은 단식이 끝나면 먹으려고 여러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원숭이는 맛있는 망고를, 들개는 우유와 고기를, 그리고 수달은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런데 풀만 먹고 사는 토끼는 오직 단식에만 열중할 생각으로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동물들이 정진하고 있을 때, 제석천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탁발승으로 변신하여 숲속에 나타났다. 탁발승이 먹을 것을 부탁하자 원숭이와 들개, 수달은 각자 준비한 과일과 고기를 내주었다. 아무것도 줄 게 없던 토끼는 자기 몸이라도 바쳐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탁발승이여,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보시할 테니 장작을 모아 불을 좀 지펴주세요."

탁발승이 불을 피우자, 토끼가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자기 몸을 태워 바치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을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 토끼는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있었다. 그때 본래 모습으로 나타난 제석천이 말했다.

"실은 내가 너희들의 수행 정신을 시험하기 위해 탁발승으로 변신한 것이다. 너희들을 살펴보니, 토끼의 수행 정신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토끼는 탁발승이 아니라 그 누가 요청했어도 절대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끼의 수행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한 제석천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큰 산을 압축해서 물감으로 만들고 달 속에 토끼를 그려넣었다.

토끼로 살았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배고픈 수행자 돕고자 불 속 뛰어들어
제석천, 토끼의 수행과 희생정신 기려
수행은 가진 것을 기꺼이 버리는 행위
크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교훈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자, 승단에 보시한 장자는 예류과(預流果)를 얻게 되었다. 그때의 수달은 지금의 아난존자이며, 들개는 목련, 원숭이는 사리불, 그리고 토끼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수행, 기꺼이 버리기[喜捨]

토끼의 공양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좋은 일에 써달라며 적지 않은 돈을 보시한 어느 학인이 떠올랐다. 그런데 보내온 금액이 5나 10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왜 그만큼 보냈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당시 통장에 남아있는 전부를 보시한 것이었다. 경우야 조금 다르지만, 토끼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준 것과 묘하게 닮은 것 같았다. 나눔이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보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일화를 들려주곤 한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리투아니아 출신의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나'라는 존재가 중심을 이루는 서구의 전통에서 벗어나 '타자'가 중심이 되는 이타주의 철학을 제시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누구든 관계없이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유한성도 극복된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그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관심을 가지고 상대 얼굴을 보면 얼마나 배고프고 추운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파악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를 마주하는 순간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상대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나올 수 없는 행위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책임이다.

오늘 소개한 자타카에 등장하는 토끼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토끼는 탁발승이 제석천으로 모습을 바꾸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말했다.

"제석천이여! 당신이 아니라 그 어떤 중생이 저의 보시를 시험한다 해도 이를 거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상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가 누구인지, 보답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응한다는 뜻이다. 토끼는 그저 배고픈 수행자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장작불 속에 뛰어들었다. 〈금강경〉에서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고 강조하였다. 상대가 마음에 들면 보시하고 미우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相)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진정 보살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시를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바라밀, 즉 수행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가 토끼의 상황이라면 어떠했을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드릴게 없어서 죄송하다거나 다른 동물에게 빌려서 보시하는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토끼는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 누군가는 이것이 자신의 몸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충분히 공감되는 문제 제기다. 불교 동화니까 그렇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대하는 수행자의 태도가 담겨있다. 수행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喜] 버리는[捨] 행위다. 부처님은 수없이 윤회, 전생을 이어오면서 이런 마음으로 수행했으며, 그 결과 인격에서 불격(佛格)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그 수행의 기록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불교 동화다.

현실에서도 지인이 도움을 청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난처할 때가 종종 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사업이 망해서 나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다. 도와달라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있을 수 없어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돈을 준 적이 있다. 당시는 공부하는 처지라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서까지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친구라면 지금도 그렇게 할 것 같다.

'토끼의 공양'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다. 크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토끼는 자신을 크게 버리고 성불(成佛)이라는 훨씬 크고 값진 것을 얻어 온 세상을 이롭게 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버리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라는 점은 잊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불교 동화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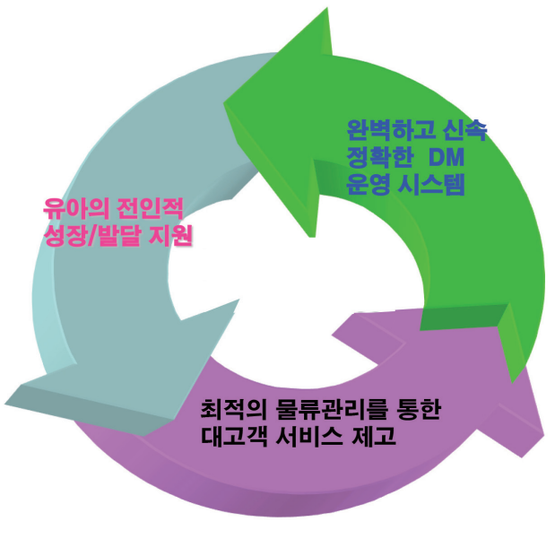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최고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